

프랑스 콘텐츠 산업동향

2024년 12호

(유럽의 ESG 정책 강화와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FRANCE

2024년 12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I. 들어가며 II. 유럽 ESG 정책 강화 III.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IV. 시사점 및 전망	유럽, 프랑스, ESG, 규제, 콘텐츠 산업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랑스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4.11.28.



유럽의 ESG 정책 강화와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방안

순서

I. 들어가며

II. 유럽 ESG 정책 강화

1. 정책의제 (Political Guideline) (2024~2029)
2.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택소노미, CSRD, SFDR)
3.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4.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5. 디지털 정책

III.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1. 산업 특성 파악
2. 정책별 대응 방안

IV. 시사점 및 전망

1. EU 법률체계 이해와 대응
2. 정책 간의 관계
3. 단계적 시행에 따른 적용 시기 확인
4. 향후 쟁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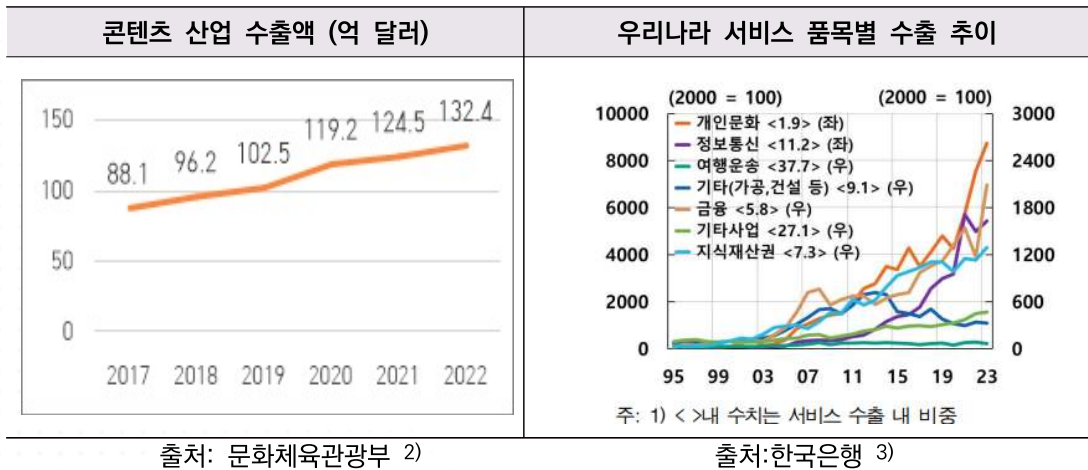
붙임

참고문헌

I. 들어가며

❖ 최근 콘텐츠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증가

- 글로벌 콘텐츠 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6조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3.3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¹⁾ 이러한 국제적인 성장 흐름에서, 대한민국 K 콘텐츠는 한류 확산과 함께 저력이 증가하여 수출액 성장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역대 최대인 132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 증가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2차전지 약 100억 달러, 전기차 약 98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음
- 또한 2024년 9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내에서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수출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문화 콘텐츠 등의 수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씩 성장하였음



❖ 유럽은 국내 콘텐츠 수출 규모 약 11억 달러(8.7%), 지역별 5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에 해당

- 2022년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약 46억 달러(36.9%), 일본 약 23억 달러(18.3%), 동남아 약 19억 달러(15.2%), 북미 약 16억 달러(13%), 유럽 약 11억 달러(8.7%)를 기록
- 유럽 수출 내에서는 게임 약 9억 달러(81.8%), 캐릭터 5,600만 달러(5.1%), 음악 3,900만 달러(3.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1) 문화체육관광부(2024), 지속 가능한 한류를 기반으로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2024), '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3) 한국은행(2024),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2022년)(단위: 천 달러)							
구분	중화권 ⁷⁴⁾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⁷⁵⁾	64,121	67,417	25,787	159,826	13,134	44,797	375,083
만화	19,367	32,791	19,835	14,051	15,463	6,128	107,635
음악	163,139	361,809	147,074	135,787	38,726	81,079	927,613
영화	16,159	9,212	6,488	5,819	9,507	24,255	71,440
게임	4,025,616	1,291,131	1,278,438	1,032,533	875,966	478,066	8,981,751
애니메이션	22,206	34,862	8,781	62,823	25,001	5,683	159,355
방송 ⁷⁶⁾	53,980	87,836	24,246	37,539	3,286	235,696	442,583
캐릭터	116,010	37,384	78,635	78,948	56,218	23,205	390,399
지식정보	63,360	263,908	243,721	61,746	16,882	51,783	701,400
콘텐츠솔루션	35,145	88,252	49,642	29,106	27,448	22,943	252,535
합계	4,579,103	2,274,602	1,882,647	1,618,177	1,081,632	973,634	12,409,795
비중(%)	36.9	18.3	15.2	13.0	8.7	7.8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 ✔ 유럽의 ESG 정책은 지속적 강화되고 있으며, 역외 기업에 대한 통상 규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 ✔ 해당 정책들은 기업규모와 공급망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 국내 콘텐츠 산업에 향후 2~3년 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4)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II. 유럽 ESG 정책 강화

- ✔ 유럽의 ESG 정책은 유럽의회 총선 결과와 북미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강화되고 있음
- ✔ 유럽 역내와 함께 역외 통상 규제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구분	ESG 정책	시행 시기 주1)		국내 콘텐츠 산업 영향 주2)	
방향성	정책의제(Political Guidelines)	2024~2029	시행 중	간접적	보통
공시	분류(Taxonomy)	2022.07~	시행 중	직접적	높음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2025.01~	예정	직접적	높음
	지속 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2021.03~	시행 중	간접적	높음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2027.07~	예정	직접적	높음
친환경	탄소중립 산업법(NZIA)	2024.06~	시행 중	간접적	낮음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2026.01~	예정	간접적	낮음
	에코디자인(ESPR)	2026.12~	예정	간접적	보통
	- 디지털제품 여권(DPP)	2027중순	예정	간접적	낮음
	-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2027.02~	예정	간접적	낮음
	산림 벌채 규정(EUDR)	2025.12~	예정	간접적	낮음
	소비자 권리 강화지침	2026.09~	예정	직접적	높음
디지털	데이터 법(DA)	2025.09~	예정	직접적	높음
	인공지능 법(AIA)	2026.08~	예정	직접적	높음
	디지털 시장법(DMA)	2023.05~	시행 중	간접적	보통
	디지털서비스법(DSA)	2023.08~	시행 중	간접적	보통

주1) 현재 시행 중 이거나, 2~3년 안에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이 예정된 정책이 대부분

주2)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일수록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판단(필자의 개인적 견해)

1 정책의제 (Political Guideline) (2024~2029)⁵⁾



- ✔ (현황) 2024년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인준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의제' 발표

※ '정책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

5) European Commission(2024),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 ✔ (변화) 폰테어라이엔은 1기 최우선 순위 정책이었던 '유럽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2기 정책의 초점은 '기후변화 대응' 자체보다는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병행'하는 '청정산업계획'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 ✔ (전망) 2024년 11월, EU 기후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 집행위원회의 친환경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⁶⁾

EU 집행위원회 정책의제- 폰테어라이엔1기, 2기 비교		
정책순위	1기 집행위(2019~2024)	2기 집행위(2024~2029)
1	유럽 그린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 기업 친화적 단일시장 구축 - 청정산업계획(★) - 순환경제법과 회복탄력성(★) - 디지털 전환(★) - 민간투자 촉진 및 숙련 인력 양성
2	사람을 위한 경제(★)	유럽 방위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시대
3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럽(★)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4	유럽의 생활양식 보호	식량 확보와 자연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축 산업 및 식품업 보호 - 수자원 및 자연보전
5	세계 속의 강한 유럽	민주주의 가치 수호
6	유럽식 민주주의 확산	글로벌 유럽

주1) 별표(★)는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ESG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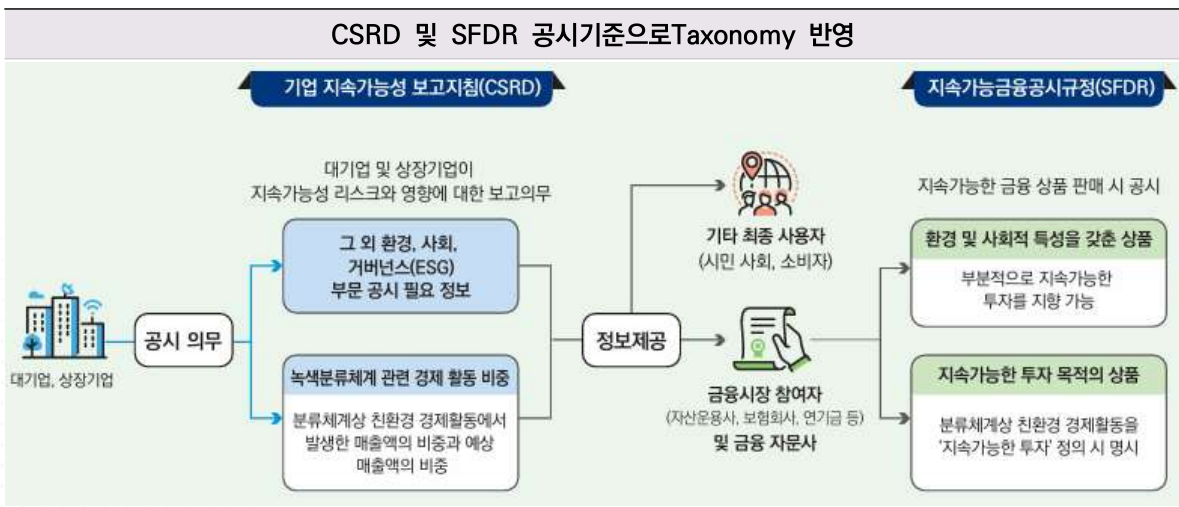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⁷⁾

6) 임팩트온(2024), EU, 일부 나라의 개정 요구에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안' 유지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택소노미, CSRD, SFDR) >>>

-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지속 가능 금융 최고위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을 조직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위한 10대 액션 플랜을 발표
- ✔ (체계)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 제도로써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을 추진하였으며, 택소노미(Taxonomy) 기준 개발 및 적용 8)



자료: KOTRA⁹⁾

- ✔ 택소노미(Taxonomy)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그린택소노미와 소셜 택소노미가 있으며, 그린택소노미는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승인을 완료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대 환경목표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 4) 순환 경제, 5) 오염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중 1가지 이상 달성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함

※ '법령명: EU Taxonomy Regulation EU 2020/852 (보완기후위임법: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EU 2022/1214)

※ 보완 기후위임법이란, 애초 택소노미에서 제외하였던 원전 및 LNG에 대한 조건부 친환경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

8) European Commission(2024),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9) KOTRA(2024), 우리 기업을 위한 EU 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

-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기존의 비재무 공시 지침(NFR)에서 1) 적용 범위를 약 1만 개 대기업에서 약 5만 개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2) 강화된 공시기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에 따라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 제도 3) 미준수시 각 회원국의 지침에 따라 벌금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024년 7월까지 회원국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단계적 적용 시작

※ 법령명: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EU 2022/2464

- ✔ 지속 가능 금융공시 규정(SFR)은 투자자 ESG 공시 의무 제도로서, 2019년 11월 유럽 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되었으며, 이후 유럽 역내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금융회사들이 2021년 3월부터 SFDR 1단계 참조 기간(Reference Period) 최초 공시를 시작했고, 2023년 1월부터는 기술 표준(RTS)을 적용한 2단계 공시를 수행하고 있음

※ 법령명: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FDR) EU 2019/2088

※ 금융회사 투자 포트폴리오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PAI)을 공시해야 하며, 펀드의 지속가능성 목표 기여 정도에 따라 6조(일반펀드)/8조(라이트그린)/9조(다크그린) 펀드로 구분하여 발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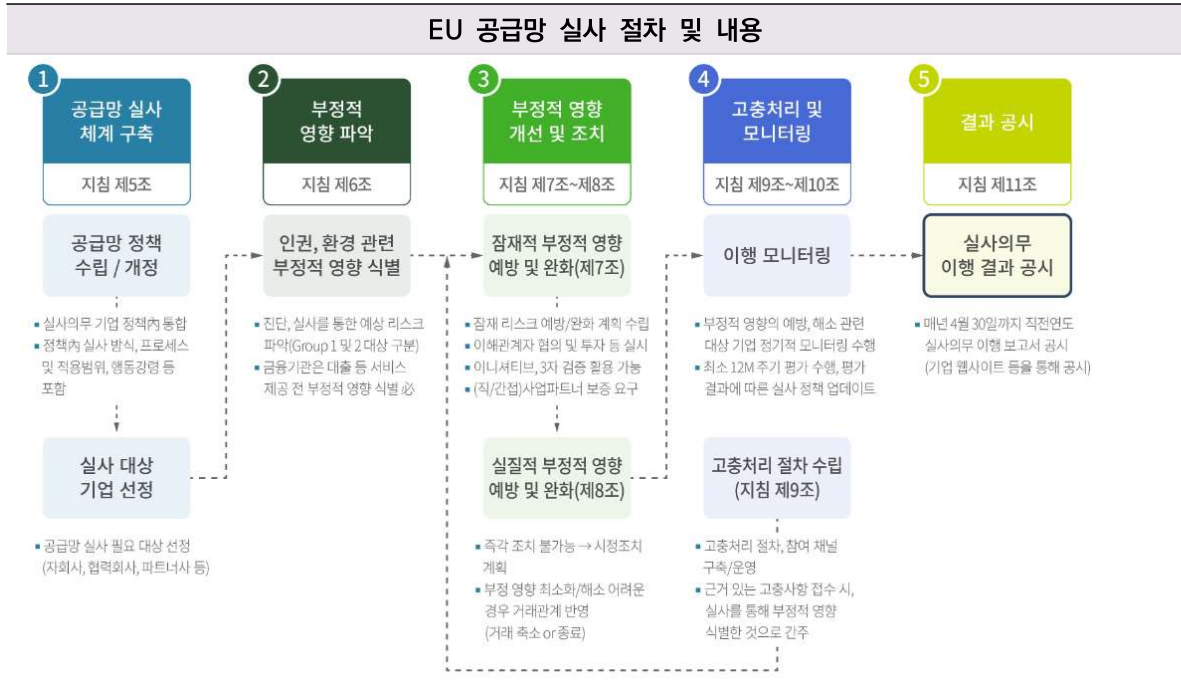
3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

※ 법령명: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 EU 2024/1760

- ✔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분야 실사 및 공시를 의무화한 법
- ✔ (배경)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 수준이 달라서 EU 차원의 공통된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
- ✔ (대상)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매출액 및 직원 수를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적용되지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종 모기업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침 적용을 받음

※ 지침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공급사들이 CSDDD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사 관련 데이터 제공, 행동강령 이행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지침을 숙지해야 함

- ✔ (일정) 2024년 7월 발효되었으며, 2026년 6월까지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전환 의무가 있음. 2027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예정 (매출액 및 직원 수 고려)
- ✔ (특징)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CSDDD는 환경과 인권,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실사(행동과 책임)를 강조하고 있어, 두 지침은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자료: 김앤장, 환경부¹⁰⁾

4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 ✔ (배경) EU는 2030년 55%,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EU 역내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영향) EU의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고탄소 제품 및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직접적 영향		
낮음	보통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산업법(NZIA) • 탄소 국경조정 제도(CBAM) • 산림 벌채 규정(EU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디자인(ES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제품 여권(DPP) -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권리강화정책

10) 환경 책임 투자 종합플랫폼(2024), 국제환경규제 동향

- ❖ 탄소중립 산업법(NZIA)¹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EU에서 2023년 2월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동시에 EU 역내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제3국의 기술 및 부품 공급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로, 2024년 6월에 발효되었음

 - ※ 법령명: The Net-Zero Industry Act(NZIA) EU 2024/1735
 - ※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총 19개의 ‘탄소중립 기술 목록’을 선정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 자금 지원 등 혜택 부여

- ❖ 탄소 국경조정 제도(CBAM)¹²⁾는 EU 회원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와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2021년 7월 EU보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재화 등을 수출할 경우, 탄소 가격의 차액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 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규정. 2023년 1월부터 3년간 시범 적용하는 ‘전환 기간’을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대상 품목*을 추가해 본격적으로 ‘확정 기간’ 시행 예정

 - ※ 법령명: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EU 2023/956
 -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 ❖ 산림 벌채 규정(EUDR)¹³⁾은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해 EU가 시행하는 새로운 규제. EU 그린딜/EU 생물다양성/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던 EU 목재 규정(EUTR), 산림법(FLEGT) 등 기존 규정에 대하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립. 2023년 6월 발효되어 2025년 12월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 2026년 6월부터 중소기업에 단계별 적용 예정

 - ※ 법령명: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DR) EU 2023/1115
 - ※ 대상 품목: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 ❖ 에코디자인(ESPR)¹⁴⁾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디자인 요건을 부과,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 관련 조항을 설정. 기존 지침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부품 및 중간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에 적용. 2020년 순환경제행동계획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2년 최초 채택되었으며, 2024년 7월 새로운 규정 발효

 - ※ 법령명: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ERSP) EU 2024/1781
 - ※ 관련 규정: 디지털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11) European Commission(2024), The Net-Zero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imate neutrality
 12) European Commission(2024),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3) European Commission(2024),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14) European Commission(2024),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 소비자 권리 강화지침(DECGT)¹⁵⁾ 은 1) 기업의 친환경 광고시 그린워싱 행위 방지, 2) 라벨링 요건 강화, 3) 계획된 노후화 이슈가 없도록 제품 내구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2024년 3월에 발효되어 2026년 9월부터 회원국 자국법으로 전환되어 시행 예정
 - ※ 법령명: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ECGT) EU 2024/825
 - ※ 관련 규정: 친환경 표시 지침(GCD, Green Claims Directive), 탄소 제거인증제(Union Certification Framework for Carbon Removals)

5 디지털 정책 »»

- ✔ (배경) EU는 2021년 3월 ‘디지털 전환 10년 정책’ 및 ‘2030 디지털 나침반 로드맵’을 발표했음.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 및 공공의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등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역내 시민의 기본권 강화,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 (영향)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광고 및 판매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함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직접적 영향		
낮음	보통	높음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장법(DMA) • 디지털서비스법(DSA) • 인공지능 법(A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법(DA) • 인공지능 법(AIA)

- ✔ 데이터 법(DA)¹⁶⁾ 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 촉진, ▲데이터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 장려,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전환 활성화 ▲불법 데이터 유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부문 간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등을 목표로 마련. EU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법(DAG)에 이어 2번째로 제정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은 회원국별로 정함. 2024년 1월 공식 발효. 2025년 9월부터 EU 전역 시행
 - ※ 법령명: Data Act(DA) EU 2023/2854
 - ※ 관련 규정: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15) European Commission(2024),New EU rules to empower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nter into force

16) European Commission(2024),Data Act

- ✔ 인공지능 법(AIA)¹⁷⁾ 은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포괄적인 규정.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최초 제안한 후 3년 만인 2024년 3월 유럽의회 통과, 5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됨.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년 후인 2026년 8월 전면 적용될 예정

 - ※ 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EU 2024/1689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에 설립된 'AI 사무국(AI Office)'은 EU 차원의 인공지능 법 핵심 이행 기관이자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는 역할 담당

- ✔ 디지털 시장법(DMA)¹⁸⁾ 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플랫폼(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하고 수평적인 디지털 시장 구현 목적.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들 및 해당 플랫폼 서비스 관리. 지정된 기업들은 6개월 이내 EU 집행위원회에 규정 준수보고서 제출.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 최대 10%, 반복될 경우 최대 20% 벌금 부과. 2023년 5월부터 적용

 - ※ 법령명: Digital Market Act(DMA) EU
 - ※ 게이트키퍼: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부킹

- ✔ 디지털서비스법(DSA)¹⁹⁾ 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기업의 관리 책임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 내 역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불법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 추천 방식 투명성 강화 등 의무 사항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적용. 2024년 2월부터 적용

 - ※ 법령명: Digital Service Act(DSA) EU
 - ※ 적용 대상 : ▲대형 플랫폼 및 검색엔진,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중개 서비스 기업에 적용되며,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재 사항 비례하여 선정.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검색엔진 2개(구글, Bing), 대형 온라인 플랫폼 22개(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지정

17) European Commission(2024),AI Act

18) European Commission(2024),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19) European Commission(2024),The Digital Services Act


III.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1 산업 특성 파악 >>>

대응 방안을 모색함에 앞서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아래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중대성 평가 결과와 글로벌 주요 ESG 평가기관들의 산업별 가중치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 5 가지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음

- ❖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Energy & Carbon Emission): 생산과정에서 제조업에 비해 직접 배출량 비중이 낮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친환경 이슈에 대해 간과할 수 있으나, Scope3 탄소 배출량, 제작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훼손 등 공급망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게임/방송/콘텐츠솔루션 등 장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인적자본(Human Capital): 산업 특성상 지식재산권(IP)을 생성하는 인력의 전문성, 중대재해 및 아동노동 이슈와 관련된 공급망 인권 관리가 중요
- ❖ 책임 있는 콘텐츠(Responsible Contents): 출판물/게임/미디어 등 생산한 콘텐츠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매우 큼. 영향력에 따른 공적 책무가 발생하므로 책임 있는 콘텐츠를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이 중요.
- ❖ 고객 및 데이터 정보보호(Privacy & Data Security):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비즈니스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이슈가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AI 기술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기본권 침해 등 중요성이 높아짐
- ❖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며,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기 위해 특허 및 저작권을 통해 IP 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소송 및 규제 위협에 노출

SASB 중대성 평가 결과 예시 _ 미디어 산업		 SASB STANDARDS New part of IFRS Foundation
구분	이슈	이슈
환경 (Environment)	에너지 관리 (Energy Management)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전원 공급을 보장하는 과제
인적자본 (Human Capital)	직원 참여, 다양성 및 포용성 (Employee Engagement, Diversity & Inclusion)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인력 이탈률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참여와 다양성 증진을 통한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주력해야 함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고객정보 보호 (Customer Privacy)	고객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과 수익 창출을 추구하나,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규제 강화로 인한 평판 위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데이터 보안 (Data Security)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보안 위협을 경계해야 하며, 적시에 대응하여 고객정보와 기업 데이터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함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 and Governance)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쟁적 행동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Competitive Behavior)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며,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기 위해 특허 및 저작권을 통해 IP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소송 및 규제 위험에 노출

출처: SASB, NH-Amundi (2024)²⁰⁾

20) SASB(2024), Materiality Finder, Internet Media & Services

2

정책별 대응 방안



국내 콘텐츠 산업 정책별 대응 방안							
장르 주1)	유럽 ESG 정책						
	공시/실사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		
	기업	금융	탄소중립/자연 자원/순환 경제	그린워싱	데이터	AI	기본권
	CSR, CSDDD	SFDR	NZIA, CBAM, ESPR, EUDR	소비자권리	DA	AIA	DMA, DSA
출판	공급망 ESG성과 종합관리	자금조달	친환경 제작 과정, 제품생산 및 유통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 친환경 원료 사용순환 경제)	친환경 광고 책임 있는 콘텐츠	고객 및 데이터 정보보호 책임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주1) 세부 산업분류는 [붙임] 참조

✔ 공시/실사 제도

- 기업공시(CSRD): 콘텐츠 산업 공통적으로 앞서 살펴본 5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공급망 ESG’ 관점에서 종합적인 성과 관리 필요
-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1)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 2)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업체 인권 보호 노력 필요
- 금융공시(SFDR):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의 ESG 분석 및 공시기준을 숙지할 필요

✔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 에코디자인(ESPR): 1) 프로세스(Process) _ 제작 과정에서 친환경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장르, 2) 제품(Product) _ 물리적인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장르에서는 원료 조달/제작/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 노력 필요

※ 관련 장르: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 소비자 권리 강화지침(DECGT): 그린워싱 이슈를 피할 수 있도록 EU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기준에 맞는 친환경 광고 제작 필요. 이는 책임 있는 콘텐츠(Responsible Contents) 이슈 관점에서 매우 중요

✔ 디지털 정책

- **디지털 법(DA)** : 점차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분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의 정책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고객 및 데이터 정보보호(Privacy & Data Security) 이슈 관리 노력 필요
- **인공지능 법(AIA)**: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IP Protection)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
- **디지털 시장법(DMA)** : 유럽이 직접적으로 설정한 게이트키퍼에 국내 기업이 당장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정책 대응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 **디지털서비스법(DSA)** : DMA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책임 있는 콘텐츠(Responsible Contents) 생산을 통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IV. 시사점 및 전망

1 EU 법률체계 이해와 대응



- ✔ 유럽 ESG 정책은 대부분 규정(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법제상 구속력 순서: Regulation > Directive > Decision
- ✔ 지침(Directive)은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국내 법으로 제정되므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해당 국가의 국내법 세부 법령을 확인할 필요 있음
 - ※ 각국에서 Directive 가 국내법 화하여 Act 로 제정한 후, 시행령인 Decree 를 제정

EU 법률체계		
법률체계	구속력	구속력
규정(Regulation)	있음	각국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의회/이사회가 제정 즉시 별도 국내 입법 없이 각국에 효력을 가짐
지침(Directive)		유럽연합의 목표치로서 유럽의회/이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외연에 해당하며, 각국은 국내법화(Implementation)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 보유
결정(Decision)		특정 회원국 혹은 특정 기업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
권고(Recommendation)	없음	구속력 없는 규범으로 회원국의 준수하기를 바라는 사항
의견(Opinion)		구속력이 없는 규범으로서, 연합의 입법 및 정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주로 전문성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료: 금융위원회 21)

2 정책 간의 관계



- ✔ (중복 대응 면제) 유럽 ESG 정책 간에 중복 대응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음. 예를 들어, CSDDD 적용 기업들은 실사 공시, 기후 전환 계획 의무가 CSRD 과 중복시 면제
- ✔ (구체적인 법안 우선) 다른 EU 법과 충돌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우선 준수해야 함. 예를 들어, 배터리 규정에는 제품에 대한 실사 의무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CSDDD 보다는 해당 법에 규정된 실사 내용을 준수해야 함

21) 금융위원회(2024), 금융 규제 법령 해석 포털, EU

- ✔ (국내법 우선) 지침(Directive)의 경우 기업이 실제로 적용받게 되는 법은 EU 지침을 반영시킨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므로, 진출 국가의 입법 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해 대비해야 함

[사례] 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프랑스 기업 실사법

-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CSDDD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
- 프랑스 내 직원 수 5,000명 이상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의무
- 공급망 실사 계획 수립 및 공개, 위험의 식별 및 평가,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또는 시정, 경보 메커니즘 설정, 모니터링 시행 등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
- ※ 법령명: La loi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3 단계적 시행에 따른 적용 시기 확인



- ✔ (규모)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 있음
- ✔ (공급망) EU 역외 기업이라도 일정 매출을 올리거나, 최종 모기업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망

[사례] EU CSDDD 시행 시기

		2027년 7월 26일부터	2028년 7월 26일부터	2029년 7월 26일부터
역내	직원 수	5천 명 초과	3천 명 초과	1천 명 초과
	매출액(전 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매출액(EU 역내)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자료: KOTRA²²⁾

22) KOTRA(2024), 우리 기업을 위한 EU 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

4

향후 쟁점 사항



✔ 공급망 측면에서 종합적인 ESG 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

정책 강화에 따른 법적 부담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SaaS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ESG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성과 관리 또는 공시 대응 필요

✔ 부정적인 이슈를 관리하여 리스크 줄이는 것이 중요

특히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이슈가 강화되고 있으며, 민사소송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최근 트렌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공시 지양

단순한 연간 배출량 공시를 지양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축 전략과 이행 성과에 대해 관리하고 공시하는 것이 중요

[붙임] 콘텐츠 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출판	출판업, 인쇄업,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출판 임대업
만화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악	음악 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 물 출판업,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영화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디지털 온라인 유통업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방송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영상물 제작업,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제작업
광고	광고대행업, 광고제 작업, 광고 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
캐릭터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상품 유통업
지식정보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가상 세계 및 가상 현실 업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솔루션업, 컴퓨터그래픽스(CG)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4)²³⁾

23)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24), 지속 가능한 한류를 기반으로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2024), '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한국은행(2024),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European Commission(2024),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임팩트온(2024), EU, 일부 나라의 개정 요구에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안' 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ropean Commission(2024),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KOTRA(2024), 우리 기업을 위한 EU 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

환경 책임 투자 종합플랫폼(2024), 국제환경규제 동향

European Commission(2024), The Net-Zero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imate neutrality

European Commission(2024),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Commission(2024),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European Commission(2024),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2024), New EU rules to empower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nter into force

European Commission(2024), Data Act

European Commission(2024), AI Act

European Commission(2024), 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European Commission(2024), The Digital Services Act

SASB(2024), Materiality Finder, Internet Media & Services

금융위원회(2024), 금융 규제 법령 해석 포털, EU

프랑스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문주 센터장	+33-1-42-93-02-84	kmj@kocca.kr
이해인 대리	+33-1-42-68-00-37	haeinlee@kocca.kr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 보고서

유럽의 ESG 정책 강화와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문주 프랑스비즈니스센터장 이해인 대리

집필자 최용환 NH-Amundi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4년 11월 28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